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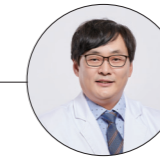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여성암 1위

# 유방암

### 유방암의 증상과 치료에 대하여

WRITER



김재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유방클리닉 교수

-인제대학교 의학과 졸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전공의/전임의

#### 유방암 환자가 증가한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와 성장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악성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가 유방을 이루는 세포에서부터 기원한 경우 유방암이라 일컫는다. 2020년 국제암 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암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으로 2012년에 비해 2020년 발생률이 24.3%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2000년 6,237명으로 집계된 유방암 환자는 매해 증가해 2019년 29,749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이 중 침윤성 유방암 환자는 약 3.9배, 상피내암 환자는 약 11.9배 증가했다. 이러한 발생 빈도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방암 발생 증가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고지방·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한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 주관 암 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활성화된 유방검진으로 유방암 발견 빈도가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 유방암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유방암 초기 단계에는 대체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멍울, 피부 변화, 유두 분비물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가장 흔한 유방암 증상은 멍울이다. 멍울이 1cm 이상 자라면 손으로 만져지며 대부분 통증은 동반하지 않는다. 계속 커질 경우 외부에서 보이거나 이차적으로 피부나 유두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유방의 굴곡 변화나 유두 및 피부의 함몰과 피부습진 등 피부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함몰의 경우 상체를 숙이거나 유방을 만져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두 근처에 발생한 유방암의 경우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특정한 한 개 유관에서 초콜릿색이나 붉은색을 띤 혈성유두분비물이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드물지만,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유방암은 드물다. 최근에는 증상 없이 유방검진에서 발견되는 경

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자가검진과 유방촬영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유방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유방암 치료는 발생 연령, 병기, 암의 병리학적 특성, 환자의 전신,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내분비치료, 표적치료 등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술적 치료는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을 포함하며, 유방암에 대한 수술은 유방부분절제술(유방보존수술)과 유방전절제술로 나눌 수 있다.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은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는 환자에서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이다.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액와림프절 청소술을 고려한다. 또한 유방전절제술은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또는 지연 유방재건수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환자들의 미용적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은 모든 환자는 전체 유방에 대한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며,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도 수술 후 결과에 따라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유방암의 약 60~70%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며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세포가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보조 내분비요법을 시행하고 폐경 상태에 따라 여성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매일 약을 복용하게 된다.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선행요법),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보조요법) 또는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환자들(완화요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c-erbB2 유전자 과발현이 있는 경우 재발이 빠르고 생존 기간이 짧아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트라스투주맙, 퍼투주맙 같은 표적치료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유방암 치료를 위한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c-erbB2 세포막을 넘어서 작용하는 증식인자의 수용체유전자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